

#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 2 교 시

- 세 무 회 계 (필수·선택) -

### 목 차

【세 법 개 론】 (필수)	.....	1
【회 계 학】 (필수)	.....	7
【상 법 총 칙】 (선택)	.....	13
【경 제 학】 (선택)	.....	18
【통 계 학】 (선택)	.....	23
【재 정 학】 (선택)	.....	28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경 찰 대 학

경찰대학 : <http://www.police.ac.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 이하의 문항에서 「」로 표시한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은 법 조문의 내용과 함께 해당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임.

1.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인 아닌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상 1 거주자로 본다.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진다.
-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다.

2.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②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 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
- ③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④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에 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제도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이다.

3. 「국세기본법」상 당초 확정과 경정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항고 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②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③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이 있는 경우 그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때에 확정된다.
- ②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라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③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확정된다.
- ④ 법인세에 관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부분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확정의 효력이 있다.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신고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②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 ③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 ④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6.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②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도달한 날이다.
- ③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 ④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7. 「국세기본법」상 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②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 ④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또는 법령이 정하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8. 「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납부고지는 부과고지와 징수고지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 ③ 납부고지서 기재 자체에 의해 객관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납부고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④ 공동상속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세의 부과고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9.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채권의 강제징수절차에서 행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 ②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을 할 수 없다.
  - ③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된 천연과실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④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채권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10. 「법인세법」상 법인종류별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 ② 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모두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과세된다.
  - ③ 영리법인의 경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없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 ④ 내국법인 중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11. 영리내국법인인 (주)백두는 제2기 사업연도(2022.1.1.~2022.12.31.)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25,000,000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25,000,000원 (기타)
  - ② 익금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25,000,000원(기타)
  - ③ 익금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25,000,000원(△유보)
  - ④ 세무조정 없음

12. 「법인세법」상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 시 소득처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타사외유출
  - ② 기타
  - ③ 기타소득
  - ④ 유보

13.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재평가세 100분의 3이 적용된 부분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인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 ③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을 자본금전입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 ④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금에 전입하는 금액으로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14. 다음 중 「법인세법」상 벌금에 해당하여 손금 불산입되는 항목은?
-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 ②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 ④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15.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처리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금액이 정관에 정해져(정관에 임원퇴직급여 계산기준이 기재된 경우 포함)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모든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영리내국법인인 (주)백두의 제17기 사업연도(2022.1.1.~ 2022.12.31.)의 접대비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17기에 (주)백두가 해야할 세무조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제17기 접대비 지출명세

- (1) 비용 계상접대비 35,000,000원
- (2) 건설중인자산 계상접대비 27,000,000원
- (3) 유형자산 계상접대비 30,000,000원
- (4) 무형자산 계상접대비 21,000,000원

나. 제17기의 접대비 한도액은 70,000,000원이고 접대비는 모두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것이다.

- ① 손금불산입 35,000,000원(기타사외유출)
- ② 손금불산입 35,000,000원(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8,000,000원(△유보)
- ③ 손금불산입 43,000,000원(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8,000,000원(△유보)
- ④ 손금불산입 43,000,000원(기타), 손금산입 8,000,000원(△유보)

17.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관련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다만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②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 ③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부인순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순이다.
- ④ 법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에는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18. 「법인세법」상 즉시상각의제와 관련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법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②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하였으나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세무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무상 법인의 감가상각비와 상각범위액을 동시에 증가시킨다.
- ④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 ③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세법영역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사법의 영역까지 확장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님)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시 적정한 시가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택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사택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0.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와 차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④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분할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21.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②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 ③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환급은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④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단,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아니하는 신탁임)
- ②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③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④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23.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 ②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 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 ③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2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 ② 사업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비 또는 지급할 당시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 ③ 사업자가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는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④ 사업자가 납부한 연금기여금으로 구성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25.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의 2022년도 사업과 관련된 자료이다. 甲의 2022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甲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가.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10,000원이다. 나. 손익계산서 상 주요 수익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수증이익 1,000원 (2)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운반구의 처분이익: 1,000원 (3) 내국상장법인에서 수령한 배당금: 1,000원 다. 손익계산서 상 주요 비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비용: 1,000원 (2) 내국상장법인 주식 처분손실: 1,000원 (3) 甲에 대한 급여: 2,000원
---

① 10,000원    ② 11,000원    ③ 12,000원    ④ 13,000원

2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법인의 근로자가 식사와 식사대를 모두 제공받는 경우 식사는 비과세하고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다.
- ③ 내국법인의 재직자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 ④ 법령에 따른 내국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27.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발생한 다음 소득 중 원천징수 되는 세액이 가장 큰 것은?

- ① 주택임주 지체로 인한 배상금 200만원(실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 ②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대가로 수령한 100만원(실제 필요경비는 20만원)
- ③ 국내은행의 정기예금 이자 70만원
- ④ 1,000원을 투입한 슬롯머신에서 당첨된 40만원

2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을 법령에 따른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계산한 환산급여 금액에서 환산급여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②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이를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③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 ④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주택 중 실지거래가액이 가장 큰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②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 ③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미등기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250만원을 공제한다.
- ④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30. 「소득세법」상 신고 및 납부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의무가 있다.
- ②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으나, 법령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 ③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분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한다.
- ④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거주자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의무가 있다.

31. 「부가가치세법」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② 사업상 목적으로 1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영위하더라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 ③ 사업개시 전에 사업장 설치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6개월이 된 날을 폐업일로 본다.
- ④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3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②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④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3.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 ②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③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④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법령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4.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②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③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④ 수입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3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였을 때, 다음 중 안분계산을 배제하는 경우의 개수는?

가. 공통사용재화를 5천만원에 공급하였으며,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1억원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만원인 경우  
 나.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이 40만원인 경우  
 다.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6. 소매업을 영위하는 甲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甲의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 과세분 공급대가 60,000,000원
나. 매입세액: 1,000,000원(전부 세금계산서 수령분임)
다.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라. 서면으로 신고하였음

- ① 845,000원      ② 850,000원      ③ 895,000원      ④ 900,000원

37.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한다.
- ②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한다.
- ③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한다.
- ④ 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한다.

38. A씨는 자녀인 B씨에게 2022년 3월 15일 주권상장주식을 증여하였다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2022년 9월 25일에 반환받았다면 증여 및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월 15일	9월 25일
①	과세 제외	과세 제외
②	과세	과세
③	과세	과세 제외
④	과세 제외	과세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 및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물납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 및 증여재산의 1/2을 초과하여야 한다.
- ③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세의 경우는 가업상속재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10년, 증여세의 경우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 ④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다.

4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② 부동산을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취득세에 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 부과대상이다.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의미하고, 보고주체는 계속해서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을 적용해오고 있으며, 보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정답선택에 있어서 문항 중 질문에 가장 합당한 것을 선택하고, 계산문제는 다양한 풀이방법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어진 문항 중 최 근사치를 선택한다.

1. 회계와 경영자의 수탁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업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의 성과를 보고할 책임은 최대주주에게 있다.
- ② 경영자의 책임은 소극적 책임에서 적극적 책임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 ③ 소유경영기업은 대리인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외부에 회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경영자의 수탁책임의 범위와 기업이 외부에 제공하는 회계정보량은 반비례 관계이다.

2.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정보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②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지만,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의사결정은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과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④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건과 정치 풍토 등과 같은 정보는 고려되지 않는다.

3.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실물자본유지개념 관점에서 (주)한국의 당기손익은?

- (주)한국은 기초 설립자산 현금 ₩1,000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 기초에 상품A를 단위당 ₩200에 5개를 매입하고, 기중에 4개를 단위당 ₩250에 판매하였다.
- 당기 말 자산은 현금 ₩1,000과 상품A 1개이다.
- 당기 말 상품A의 현행원가 ₩300, 판매가 ₩400
- 당기 일반물가인상률 10%

- ① 손실 ₩200                      ② 손실 ₩100
- ③ 이익 ₩300                      ④ 이익 ₩400

4. '재무제표의 표시'에서 제시한 '일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진 경우에도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된다.

- ② 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 ③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④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5.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조정 될 수 없는 항목은?

- 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채무상품 평가손익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으로 선택한 지분상품 평가손익
- ③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외화환산손익
- ④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6. (주)한국의 20×1년 비교재무상태표 일부내용과 보충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의 20×1년도 영업순환주기(정상영업주기)는? (단,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

	20×1년	20×0년
...	...	...
매출채권	?	₩4,000
재고	₩1,000	?
...	...	...

- 20×1년 당기 매출원가 ₩20,000, 재고매입액 ₩18,000  
 - 재고는 원가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  
 - 당기 중 매출 및 매출채권 관련 현금회수액 ₩26,000

- ① 36일                      ② 45일                      ③ 72일                      ④ 81일

7. (주)한국의 20×1년 재무상태표 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8,000 이고, 모든 유동자산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주)한국의 당좌예금은?

국내통화	₩200	외국환 주화	€1
수입증지	₩400	우편환	₩500
보통예금	₩300	당좌예금	₩ ?

양도성예금증서(20×1년 11월1일 취득, 20×1년 9월 1일 발행 만기 6개월) ₩600

20×1년 평균 기준 환율 : €1=₩1,500  
 20×1년 말 기준 환율 : €1=₩1,000

- ① ₩5,400                      ② ₩5,500                      ③ ₩6,000                      ④ ₩6,600

8. (주)한국의 20×1년도 회계자료 중 일부인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매출채권은?

기초상품재고	₩240	당기상품매입액	₩400
기말상품재고	220	당기현금매출액	100
매출총이익	180	기초매출채권	160
매출채권회수액	520		

- ① ₩120                      ② ₩140                      ③ ₩160                      ④ ₩180
9. (주)한국은 20×1년 중 증권시장에서 주식A와 주식B를 취득한 후, 20×3년 중 모두 처분하였다. 주식 거래가액 및 보유 기간 중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두 주식을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각 분류 방법에 따른 (주)한국의 20×3년 당기손익의 차이는?

주식	20×1년 중 취득원가	20×1년말 공정가치	20×2년말 공정가치	20×3년 중 처분가 (공정가치)
A	₩200	₩160	₩240	₩260
B	400	600	500	360

- ① ₩80                      ② ₩100                      ③ ₩120                      ④ ₩140
10. (주)한국은 재고자산의 가격결정방법으로 선입선출을 가정한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입선출 소매재고법 원가율은 6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주)한국의 당기 매출총이익은?

기초재고 원가	₩100	기초재고 판매가	₩400
당기매입 원가	600	당기매입 판매가	?
판매가 순인상액	200	판매가 순인하액	100
순매출액	900		

- ① ₩200                      ② ₩300                      ③ ₩400                      ④ ₩500
11. 운송업체인 (주)한국은 20×1년 초 수송기로 사용되던 중고 항공기A(공정가치 ₩1,000, 잔존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400)와 신형 여객용 항공기B(공정가치 ₩2,000, 내용연수 12년, 잔존가치 ₩400)를 ₩2,400에 일괄 매입하였다. (주)한국은 항공기A를 수리하여 여객용으로 교체(자산인식요건 충족,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변화 없음)하고, 항공기B는 시운전 후, 두 항공기 모두 20×1년 초부터 영업에 사용하였다. 20×1년 두 항공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또는 비용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의 20×1년 말 항공기A의 장부가액은? (단, (주)한국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연수합계법을 사용한다)

항공기A 취득등록세	₩200	항공기B 취득등록세	₩500
항공기A 재산세	1,500	항공기B 재산세	200
항공기A 여객용 교체	400	항공기B 시운전	200
항공기A 취득과정운반((주)한국이 부담)	₩200		

- ① ₩1,080                      ② ₩1,120                      ③ ₩1,240                      ④ ₩1,360

12. (주)한국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년 초 기계장치A(취득원가 ₩2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원가모형 적용)를 취득했으며,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이용한다. 기계장치A 관련 측정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인식할 20×2년 말 기계장치A 관련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 환입은? (단, 회수가능액의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의한 것이다)

시점	공정가치	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
20×1년 말	₩110	₩30	₩120
20×2년 말	160	20	80

- ① 손상차손 ₩10                      ② 손상차손 ₩20  
③ 손상차손환입 ₩30                      ④ 손상차손환입 ₩50
13. 유형자산의 손상 인식과 비교할 때,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만, 자산재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된다.  
② 공정가치의 하락 만이 아닌 상승 시에도 기존의 장부금액과의 중요한 차이 금액을 인식한다.  
③ 손상차손 인식은 의무사항이지만 자산재평가 모형의 적용은 선택사항이다.  
④ 재평가의 빈도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이 경미한 경우, 3년 또는 5년마다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14.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발활동으로 옳은 것은?
- ①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의 응용  
② 개선된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 평가  
③ 신규 판매 확정 제품에 대한 사내 개발부서 직원들의 브랜드 개발  
④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의 설계

15. (주)한국은 20×1년 초 사채권면상 액면금액 ₩100,000의 사채를 액면이자율 10%, 유효이자율 12%, 3년 만기,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으로 ₩95,200에 발행하였다. 20×1년 말 당해 사채 전체를 ₩97,000에 현금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에 따른 사채 상환손익은? (단, 20×1년 말 상환일 현재 미상 각 사채 할인발행차금 잔액은 ₩3,376이다)
- ① 상환손실 ₩376                      ② 상환이익 ₩376  
③ 상환손실 ₩1,214                      ④ 상환이익 ₩1,214

16. (주)한국은 액면금액 ₩100,000, 액면이자율 10%, 만기가 20×4년 3월 31일(사채권면상 발행일은 20×1년 4월 1일로 기록됨)인 사채를 20×1년 10월 1일에 발행하였다. 사채권면상 발행일(20×1년 4월 1일)의 시장이자율은 11%이며, 실제 발행시점(20×1년 10월 1일)의 시장이자율은 12%이다. 이자는 매년 3월 31일에 지급되며, 사채발행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20×1년 10월 1일 시점의 사채발행금액은? (단, 사채권면상 발행일의 사채 현재가치는 ₩95,200이다)
- ① ₩92,818    ② ₩93,056    ③ ₩95,436    ④ ₩95,912

17. (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립되어 냉장고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며, 판매 후 냉장고에 하자가 있는 경우 2년간 무상으로 보증수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증수리비용은 대당 ₩200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판매수량의 30%에서 판매 이후 2년간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년 말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제품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할 금액은? (단, (주)한국은 제품판매에 따른 보증수리용역을 제품의 판매와 구분할 수 없는 단일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냉장고 판매 및 보증비 지출은 모두 현금거래이다)

	판매수량	단위당 판매가격	실제 보증비지출액
20×1년	1,000개	₩500	₩10,000
20×2년	1,100개	600	12,000

- ① ₩66,000      ② ₩54,000      ③ ₩50,000      ④ ₩48,000
18. ‘재무제표 표시’의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 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②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및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③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④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9. ‘법인세’회계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한다. 만약 그러한 경제적효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일치한다.
- ②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당해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되지 않을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 ③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지만 세무기준액을 가지는 항목이 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이 미래 회계기간에 공제하도록 한 금액이 연구원가의 세무기준액이 되므로 이 금액과 영(0)인 장부금액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초래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이다.
- ④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적절한 세무기준액을 비교하여 영구적차이를 결정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의 세무기준액은 제출되는 연결세무신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20. (주)한국의 20×1년 초 현재 자본내역은 보통주자본금(액면 ₩1,000) ₩1,000,000, 주식발행초과금 ₩40,000, 감자차익 ₩10,000, 이익잉여금 ₩700,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년에 발생한 거래가 다음과 같다면,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자본총액은? (단, 20×1년 초 자기주식과 자기주식처분손익 잔액은 ₩0이다)

3월 21일	자기주식 20주를 주당 ₩2,000에 취득하였다.
4월 15일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500에 취득하였다.
6월 25일	3월에 취득한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2,500에 처분하였다.
9월 10일	3월에 취득한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1,500에 처분하였다.
11월 20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모두를 소각하였다.
12월 31일	당기순이익 ₩200,000을 보고하였다.

- ① ₩1,935,000      ② ₩1,945,000  
 ③ ₩1,955,000      ④ ₩1,965,000
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거래가격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의무(또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다.
- ② 개별 판매가격의 최선의 증거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가격이다. 재화나 용역의 계약상 표시가격이나 정가는 그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일 수 있지만, 개별 판매가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③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 할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이때,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들을 최대한 사용하고 비슷한 상황에서는 추정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개별 판매가격 추정방법에는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잔여접근법 등이 포함된다.
- ④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종료시점에 계약상 각 수행의무의 대상인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22. (주)한국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 만기 3년, 액면 이자율 10%, 이자지급 매년 말 1회인 전환사채를 액면발행 하였다. 또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만기일에 상환 할증금 ₩8,000이 지급된다. 사채발행당시 전환옵션이 없는 유사사채에 대한 유효이자율은 12%이며, 사채발행일 이후 5개월 시점부터 만기일 전까지 사채액면금액 ₩10,000당 액면 ₩5,000의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 하고 있다.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인식될 전환권대가는? (단, 기간 3년 단일금액의 현재가치계수는 0.7, 기간 3년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2.4를 적용한다)
- ① ₩300                      ② ₩400                      ③ ₩500                      ④ ₩600

23. (주)한국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 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000,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2,000,000이다. 20×1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는 ₩100,000이며, 20×1년 말에 사외적립자산에서 퇴직급여 ₩100,000이 지급되었고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여금 ₩50,000이 납부되었다. 20×1년 말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2,500,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950,000이라면, 20×1년 말 당기손익에 반영될 퇴직급여 원가는? (단,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은 10%이며 매년 동일하다)
- ① ₩0                      ② ₩100,000                      ③ ₩200,000                      ④ ₩300,000

24. 12월 말 결산법인 (주)한국은 20×1년 말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고 장부마감 전에 수정 완료하였다. 오류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0,000이라면,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 20×1년 7월 1일부터 20×2년 6월 30일까지의 1년분 보험료 ₩12,000을 20×1년 7월 1일에 현금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 20×1년 7월 1일부터 20×2년 6월 30일까지의 1년분 이자 비용 ₩24,000을 20×2년 6월 30일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할 계획 으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 20×1년 7월 1일부터 20×2년 6월 30일까지의 1년분 임대료 ₩36,000을 20×1년 7월 1일에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 20×1년 7월 1일부터 20×2년 6월 30일까지의 1년분 수수료 수익 ₩48,000을 20×2년 6월 30일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할 계획으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 (주)한국은 (주)대한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년 초에 개당 원가 ₩15,000의 상품 10개를 적송하면서 적송 운임 ₩10,000을 지급하고,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20×1년 중 (주)대한은 수탁상품 5개를 개당 ₩20,000에 판매(판매 수수료 개당 ₩2,000)하여 (주)한국에 통보하였지만 (주)한국은 이를 누락하였다.

- ① ₩102,000                      ② ₩108,000                      ③ ₩110,000                      ④ ₩125,000

25. 회계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 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와 과거에 발생하 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추정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추정의 수정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26. (주)한국은 20×1년 초 총계약금액이 ₩300,000인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3년이며, 20×1년 초 총계 약원가는 ₩200,000으로 추정되었으나 원부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20×2년부터 ₩220,000으로 증가하였고 실제로 그 원가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아파트공사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20×2년과 20×3년의 계약손익은? (단,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20×1년	20×2년	20×3년
누적발생계약원가	₩60,000	₩110,000	₩220,000
추정총계약원가	200,000	220,000	220,000
계약대금 청구액	100,000	100,000	100,000
계약대금 회수액	60,000	100,000	140,000

- |                | 20×2년        | 20×3년 |
|----------------|--------------|-------|
| ① 계약손실 ₩40,000 | 계약이익 ₩10,000 |       |
| ② 계약이익 ₩10,000 | 계약이익 ₩40,000 |       |
| ③ 계약이익 ₩40,000 | 계약손실 ₩10,000 |       |
| ④ 계약손실 ₩10,000 | 계약손실 ₩40,000 |       |

27. (주)한국은 20×1년 중에 취득원가 ₩300,000의 설비자산을 구입하였고, 취득원가 ₩280,000(장부금액 ₩250,000)의 설비 자산을 ₩260,000에 처분하였다. (주)한국의 모든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거래는 현금거래이고, 설비자산 및 감가상각 누계액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설비자산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당기 현금흐름표에 표시될 투자활동 순현금흐름은? (단, (주)한국은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손상차손은 없다)

	20×1년 초	20×1년 말
설비자산	₩600,000	₩620,000
감가상각누계액	(120,000)	(110,000)

- ① 현금유입 ₩10,000                      ② 현금유출 ₩10,000  
 ③ 현금유입 ₩40,000                      ④ 현금유출 ₩40,000

28. (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원가 및 비용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직접재료원가는?

기본(기초)원가	₩45,000	전 환 (가 공 ) 원 가	₩30,000
간 접 재 료 원 가	5,000	영 업 사 원 급 여	3,000
본 사 임 차 료	4,000	공 장 감 가 상 각 비	6,000
공 장 소 모 품 비	2,000	간 접 노 무 원 가	4,000

- ① ₩25,000      ② ₩28,000      ③ ₩32,000      ④ ₩36,000

29. (주)한국은 20×1년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배부차이를 조정하기 전의 제조간접원가 계정과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및 매출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제조간접원가			
100,000		120,000	
구 분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금 액	₩200,000	₩300,000	₩500,000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배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는?

- ① ₩480,000      ② ₩490,000      ③ ₩510,000      ④ ₩520,000

30. (주)한국은 제조부문인 조립부문과 도장부문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으로 수선부문과 동력부문을 두고 있다. (주)한국은 단계배분법을 적용하여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 있다. 각 부문의 부문원가와 용역수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도장부문에 배부될 보조부문원가는? (단, 보조부문원가는 수선부문부터 배부한다)

구 분	보조부문		제조부문		합 계
	수선부문	동력부문	조립부문	도장부문	
부문원가	₩30,000	₩25,000	₩70,000	₩85,000	₩210,000
수선부문	-	50%	30%	20%	100%
동력부문	20%	-	30%	50%	100%

- ① ₩21,000      ② ₩24,000      ③ ₩26,000      ④ ₩31,000

31.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conversion costs)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주)한국의 20×1년 생산 및 원가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생산수량 내역

구 분	수 량	전환원가 완성도
기초재공품	400단위	30%
당기 착수	1,000단위	-
당기완성품	1,100단위	-
기말재공품	300단위	40%

나. 제조원가 내역

구 분	직접재료원가	전환원가
기초재공품원가	₩8,500	₩4,000
당기발생원가	20,000	44,000

(주)한국의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① ₩53,200      ② ₩54,500      ③ ₩65,700      ④ ₩76,500

32. (주)한국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결합제품 A, B를 생산하고 있으며,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결합원가는 ₩200,000이다. 제품 A와 B는 분리점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추가가공한 후에 판매된다. 결합제품의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및 추가가공 후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생산량	추가가공원가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A	200단위	₩30,000	₩1,000
B	150단위	70,000	2,000

균등이익률법에 따라 결합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할 때, 제품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단, 재공품 및 공손은 없다)

- ① ₩90,000      ② ₩100,000      ③ ₩110,000      ④ ₩120,000

33.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와 관련된 표준 및 실제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의 실제 제품생산량은?

제품단위당 직접재료 표준투입량	5kg
직접재료원가 실제 발생액	₩81,000
직접재료 단위당 실제구입원가	₩90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	₩9,000(유리)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	₩10,000(유리)

- ① 220단위      ② 200단위      ③ 180단위      ④ 160단위

34. (주)한국은 20×1년에 영업을 시작하여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이다. 20×1년에 제품 1,000단위를 생산하여 800단위를 판매하였다. 제품과 관련된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의 차이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1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20
총고정제조간접원가	₩40,000
총고정판매관리비	₩15,000

- ① ₩8,000      ② ₩9,000      ③ ₩10,000      ④ ₩11,000

35.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과 20×2년의 생산량과 총제조원가에 대한 자료로서,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고정원가는 일정하였다.

구 분	생 산 량(단위)	총 제 조 원 가
20×1년	1,500	₩200,000
20×2년	2,000	250,000

20×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총고정원가는 20% 증가하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10% 감소한다면, 생산량이 3,000단위일 때 총제조원가는?

- ① ₩318,000    ② ₩330,000    ③ ₩378,000    ④ ₩390,000

36. (주)한국의 20×1년 매출액은 ₩500,000, 총고정원가는 ₩160,000, 공헌이익률은 40%이며, 법인세율은 30%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동일하다)

- ① 안전한계율은 25%이다.  
 ② 영업레버리지도는 5이다.  
 ③ 세후 영업이익은 ₩28,000이다.  
 ④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400,000이다.

37. (주)한국은 단일제품 500단위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200이며, 단위당 변동원가는 ₩120이다. (주)한국은 (주)대한으로부터 단위당 ₩180에 200단위를 구입 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별도의 포장작업으로 인해 추가로 단위당 변동원가 ₩10이 발생한다. (주)한국의 최대생산능력은 600단위로 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기존 시장의 판매량 1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주)한국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증분손익은?

- ① 증분손실 ₩10,000                      ② 증분손실 ₩8,000  
 ③ 증분이익 ₩2,000                      ④ 증분이익 ₩10,000

38. (주)한국은 20×1년 분기별 생산량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50단위	300단위	320단위	280단위

(주)한국은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원재료 5kg을 투입하고 있으며, kg당 구입단가는 ₩10이다. 원재료 재고정책은 각 분기별로 다음 분기 생산량의 생산에 투입될 소요량의 10%를 안전재고로 보유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3분기의 원재료 구입예산액은?

- ① ₩15,600    ② ₩15,700    ③ ₩15,800    ④ ₩15,900

3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④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0. 국가회계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 운영표 양식에서 재정운영순원가의 계산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로그램순원가  
 ② 비배분수익  
 ③ 관리운영비  
 ④ 비교환수익

1. 「상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사자치법이란 회사 기타의 단체가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법규를 말하는데, 이는 「상법」의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상관습법이란 상거래에서 장기간 되풀이되어 온 결과 거래계의 다수인에 의해 법규범으로서 확인을 얻은 행위 양식으로 사실상 상관습을 말한다.
- ③ 「상법」 제1조는 판례의 법원성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보통거래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약관 자체가 「상법」의 법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 「상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법은 구법을 변경하나, 신법이 일반법이고 구법이 특별법일 때에는 일반신법은 특별법인 구법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② 「상법」은 대한민국의 전영토에 적용됨이 원칙이다.
- ③ 「상법」은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④ 일방 당사자가 수인이고 그 일부만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상법」 제4조 당연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연상인이 행하는 기본적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상행위를 말한다.
- ② 당연상인은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영업이란 영리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 주체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는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이다.
- ④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기업성이 없으므로 상행위에서 제외된다.

4. 「상법」상 의제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수원을 경영하는 자가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 대부분을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민사회사로 보아야 한다.
- ②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营业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 ③ 변호사는 공익적 지위로 보아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营业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낙찰계의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가게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营业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면 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다.

5.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의 실질 경영주인 甲이 회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한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회사가 아니라 甲이 자금을 차용한 이상 비록 甲이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이고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甲에게는 상인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자연인은 개업준비행위를 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는데, 개업준비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업광고나 간판부착 등과 같이 영업의사가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③ 회사가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영업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상인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 ④ 자연인이 「상법」 제4조와 제5조의 영업개시를 함에 있어, 행정규제의 목적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어야만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6. 영업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은 그 기관을 통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상인자격이 있으면 영업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을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때에는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 관하여는 능력자로 추정한다.
- ④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 소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 ② 소상인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소상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소상인으로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8.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과 판례에 의함)

- ① 이사가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등의 지위를 겸하여 회사의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상업사용인에 관한 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와의 종속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상업사용인은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상업사용인이 될 수 없다.
- ④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 영업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인 상인의 종속적 보조자는 아니므로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9.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청산 중의 회사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는 영업을 전제로 하는 지배인은 선임할 수 없으나, 재판상 행위만을 대리하기 위한 지배인은 선임할 수 있다.

10. 「상법」 제16조의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주와의 실제적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라는 외관 자체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 ② 외판원과 같이 점포 밖에서 고객을 찾아 거래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는 영업주로부터 일정한 수권을 받은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점포에서 근무함으로써 상품을 판매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④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점포 외에서 수령할 권한이 있다.

11. 공동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지배인의 선임은 대리권의 범위를 내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대리권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 ②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③ 공동지배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영업주가 추인할 수 있으며, 추인한 때로부터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 ④ 공동지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만 의사표시를 하여도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12. 표현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본점 또는 지점에서 ‘지점차장’과 같은 명칭 자체로 상위직 사용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의 명칭으로 볼 수 없다.
- ② 표현명칭의 사용에 대한 영업주의 허락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명칭 사용을 묵인한 경우에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영업주가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표현지배인이 소속된 본점이나 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외관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④ 표현지배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1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표현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은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선임 또는 해임은 지배인도 할 수 있다.
-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④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4. 「상법」상 회사의 설립 시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 것은?

- ① 유한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15. 상호와 관련한 「상법」 규정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나. 상인이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그 영업이 등기되지 아니한 상호는 양도할 수 없다.

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라.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강학상 상호전용권이라고 한다.
- ② 상호전용권은 상호의 등기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상호가 절대적 등기사항이 아닌 개인상인은 등기함으로써 상호의 배타성을 누릴 수 있다.
- ③ 상호를 등기한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는 「상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7. 다음의 상호 중 「상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 ① 개인상인 甲은 서울에서 점포를 개업하면서 ‘오사카함박’을 상호로 선정하였다.
- ② 개인상인 乙은 분식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분식천국’을 상호로 선정하였다.
- ③ 합자조합 A가 사업경영을 시작하면서 ‘온누리금융합자회사’를 상호로 선정하였다.
- ④ 丙과 丁은 제지회사를 설립하려고 뜻을 모으고, ‘큰술제지’라는 상호를 선정하여 등기신청을 하였다.

18. 「상법」상 상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②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 ③ 동일한 상호의 경우 선등기자는 후등기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 ④ 상호등기자의 상호사용폐지청구는 위반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와 구분된다.
- ②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을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다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 ④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대리권이 없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20. 甲은 명의대여자 乙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상인인 명의차용자 丙에게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상법」상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만약 乙이 상인이 아닌 경우라면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甲이 명의대여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 ③ 만약 乙이 호텔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丙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丙이 乙의 가게와 창고 및 전화를 수 회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것만으로는 명의사용의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1. 상호의 양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는 재산권의 성질도 가지므로 등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할 수 있다.
- ② 「상법」에 따르면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③ 이때의 ‘영업의 폐지’란 정식으로 영업의 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④ 상호를 영업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2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22. 甲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10년간 ‘거대멸치쌈밥’이라는 식당을 경영하면서 멸치쌈밥 맛집으로 명성을 쌓아 왔지만 상호등기를 하지는 않고 있었다. 최근 乙이 아산시에 ‘거대멸치전문점’이라는 상호를 선정하고 상호등기를 완료하였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의 부정목적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乙의 영업을 건조멸치의 유통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라면 甲은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 ④ 甲이 영업을 폐지하더라도 ‘거대멸치쌈밥’이라는 상호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3. 「상법」상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한회사가 회사의 설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합자회사가 상호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합명회사가 설립을 위하여 신청한 가등기는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24. 영업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인의 영업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이다.
- ② 해변축제기간 중의 일시적 매점은 영업소가 아니다.
- ③ 판례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출장소도 일반적으로 영업소로 볼 수 있다.
- ④ 상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공장이나 창고는 영업소가 아니다.

25. 「상법」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 ①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 ② 회사가 자신의 상호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③ 개인상인이 영업을 개시하고 상업장부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④ 영업양도 후 양도인이 영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6. 다음 보기의 ( )안에 들어갈 올바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가.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 )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 )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광고 후 ( )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라.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27. 상업장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인은 상업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④ 「상법」은 상업장부상의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자산별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8.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상대적 등기사항이라 하더라도, 일단 등기를 하면, 그 변경 또는 소멸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 ③ 영업주가 본점의 지배인과 지점의 지배인을 별도로 선임하였다면, 본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9. 「상법」 제39조(부실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제3자가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를 한 후에 이사들을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③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부실등기를 마친 자가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 ④ 합명회사의 경우 대표사원의 유고로 회사정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있다면,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는 그 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30.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는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② 조세부과처분의 주체인 국가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 ③ 등기한 후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
  - ④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1.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의 경우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의 유무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설립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오로지 설립 등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 ④ 제3자가 등기명의인 모르게 부실한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등기신청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상법」 제39조가 적용되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2. 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②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다.
  - ③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고 본다.
  - ④ 근로자는 영업양수기업에로의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양수기업에 대한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3. 영업양도의 개념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② 운수업자가 운수업을 폐지하는 자로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그 운수사업의 면허 및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 폐지 전 종업원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
  - ③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는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 ④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호의 계속사용은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그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전혀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된다고 볼 것이다.

34. 영업양도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그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는 그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
- ②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③ 영업양도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35. 영업양도의 개념 및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주식회사 영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 ② 영업양도에서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된다.
- ③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가 무효라는 이유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면, 그 근로자와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④ 농업협동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동 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에 의한 경업금지의무는 없다.

36.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② 인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4개의 호텔을 소유하던 영업양도인이 그중 2개의 호텔을 양도한 이후에도 나머지 2개의 호텔을 계속 운영하여 영업양수인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라면, 그 양도인은 그 나머지 호텔의 영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 ③ 영업양도인은 영업을 양도하기 전에 영업양수인과 협의하여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구체적인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 ④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영업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37. 영업양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한다.
- ③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양수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경업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개입권도 행사할 수 있다.
- ④ 영업양도는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8.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 채권자인 제3자가 해당 영업양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다.
- ③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9.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이 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회사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채무인수의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 회사재산의 양도에 관한 약정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지 않아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 전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
-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④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출자자의 출자 후 폐업된 사업에 관련한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40.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옥호(屋號) 또는 영업 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나.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

다. 「상법」 제4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악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라.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제3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라

1. 어떤 소비자의 선호관계를 효용함수  $u(x, y) = xy$ 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자( $x, y \geq 0$ ). 다음 중 이 소비자의 효용함수와 같은 기능을 하는 효용함수를 모두 고르면?

가.  $100xy + 200$   
 나.  $xy(x + y)$   
 다.  $x^2 + y^2 + 2\sqrt{xy}$   
 라.  $3\sqrt{xy} - 100$

- ① 가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다, 라

2. 주어진 소득  $m$ 으로 세 재화  $x, y, z$ 를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를 고려하자. 각 재화의 가격이 각각  $p_x, p_y, p_z$ 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소비자의  $x$ 재에 대한 효용극대 수요함수가  $x(p_x, p_y, p_z, m) = k p_x^a p_y^b p_z^c m^d$ 와 같다고 하자. 단,  $k > 0$ 이며,  $x$ 재는 정상재(normal good)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ad < 0$   
 나.  $a + b + c = 1$   
 다.  $a + b + c + d = 0$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모두 옳지 않다.

3. 두 재화  $x$ 와  $y$ 를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선호관계가 완비성, 이행성, 연속성을 만족하며 이 선호관계를 효용함수  $u(x, y)$ 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자. 소비점  $(x, y)$ 를  $A, B$ 와 같이 나타낼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u(A) = 0$ 이면,  $A$ 를 소비하더라도 이 소비자는 아무런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다.  
 ②  $u(A) = -3$ 이면, 이 소비자는  $A$ 를 소비함으로써 기분이 나빠진다.  
 ③  $u(A) = 3$ 이고  $u(B) = 6$ 이면, 이 소비자는  $B$ 를  $A$ 에 비해 두 배 더 좋아한다.  
 ④  $x$ 재의 한계효용이  $MU_x(A) = 0$ 이면,  $A$ 에서  $x$ 재만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이 소비자의 만족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4.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 y) = xy^2$ 이고  $x$ 재 가격이 1,  $y$ 재 가격이 2, 그리고 소득이 30이다.  $y$ 재의 가격이 1로 하락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x$ 재 소비량은 감소하고  $y$ 재 소비량은 증가한다.  
 ②  $x$ 재와  $y$ 재 소비량이 모두 증가한다.  
 ③  $x$ 재는  $y$ 재의 독립재이다.  
 ④  $y$ 재의 가격 하락 후에는  $x$ 재와  $y$ 재 소비에 각각 소득의 절반씩 지출한다.

5. 두 재화  $x$ 와  $y$ 를 소비하는 길동이의 선호관계를 효용함수  $u(x, y) = 2\sqrt{x} + y$ 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자. 각 재화의 가격은  $p_x$ 와  $p_y$ 로 나타내자. 길동이는 할머니로부터  $x$ 재 4개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다. 길동이가 상품권 대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상대가격비가  $\frac{p_x}{p_y} = \frac{3}{5}$ 이면, 같은 금액의 현금을 받을 때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다.

나. 상대가격비가  $\frac{p_x}{p_y} = \frac{2}{5}$ 이면, 같은 금액의 현금을 받을 때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다.

다. 상대가격비의 크기와 관계없이, 상품권이 같은 금액의 현금보다 더 큰 효용을 줄 수 없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6.  $x$ 재의 가격이 변하여 연관재인  $y$ 재의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x$ 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x$ 재는 열등재이다.

나.  $x$ 재의 가격이 변할 때,  $y$ 재에 대한 수요의 교차탄력성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y$ 재는  $x$ 재의 대체재이다.

- ① 가  
 ② 나  
 ③ 가, 나  
 ④ 가, 나 모두 옳지 않다.

7.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 y) = \min\{x, y\}$ 이고  $x$ 재의 가격은 2,  $y$ 재의 가격은 1이며 소득은 12이다.  $x$ 재의 가격이 3으로 변할 때, 다음 중 보상변화( $CV$ : compensating variation)와 동등변화( $EV$ : equivalent variation)의 관계를 옳게 표현한 것은? (단,  $CV$ 와  $EV$ 는 절대값으로 나타낸다.)

- ①  $CV = EV$   
 ②  $CV = EV - 1$   
 ③  $CV = EV + 1$   
 ④  $CV = EV + 2$



16. 프로야구팀 두산(A팀)과 키움(B팀)은 서울에 연고지를 두고 있다. 한 팀의 티켓판매량은 그 팀의 티켓가격과 다른 팀의 티켓가격에 영향을 준다.

두산의 티켓 수요함수가  $Q_A = 200 - 2P_A + P_B$  이고 키움의 티켓 수요함수가  $Q_B = 100 - 2P_B + P_A$  이며 두 팀 모두 티켓 판매 비용은 0이라 하자. 두 팀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티켓가격을 동시에 결정하는 경우, 두 팀의 균형 티켓가격은? (단,  $P_A$ : 두산 티켓가격,  $P_B$ : 키움 티켓가격)

- ①  $P_A = 50, P_B = 30$
- ②  $P_A = 60, P_B = 40$
- ③  $P_A = 70, P_B = 50$
- ④  $P_A = 80, P_B = 60$

17. 완전경쟁시장인 음반 시장의 수요는  $P = 120 - 2Q$  이고 공급은  $P = 6 + Q$  라고 하자. 정부가 생산자에게 음반 한 단위당 6원씩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자. 단위 당 세금 6원 중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는가?

- ① 소비자 부담 0원, 생산자 부담 6원
- ② 소비자 부담 2원, 생산자 부담 4원
- ③ 소비자 부담 4원, 생산자 부담 2원
- ④ 소비자 부담 6원, 생산자 부담 0원

18. 두 가지 유형(고품질과 저품질)의 차가 거래되는 중고차시장을 고려하자. 10,000대의 중고차가 있고 그 중 2/5가 고품질의 차량이며 3/5이 저품질의 차량인 것이 알려져 있다. 구매자는 고품질 차는 400만원, 저품질 차는 200만원에 구매할 의사가 있고, 판매자는 고품질 차는 300만원, 저품질 차는 100만원으로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판매자는 자신의 차의 품질을 알고 있으나 구매자는 개별 차의 품질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 시장의 균형상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모든 시장 참여자는 위험중립적이며, 잠재적 구매자는 무한히 많다고 가정한다.)

- ① 모든 품질의 차가 구분없이 300만원에 거래된다.
- ② 모든 품질의 차가 구분없이 200만원에 거래된다.
- ③ 저품질의 차만 200만원에 거래된다.
- ④ 저품질의 차만 100만원에 거래된다.

19. 길동이는 확률 0.25로  $x = 100$ (원)을 얻고 확률 0.75로  $x = 36$ (원)을 얻는 복권을 가지고 있다. 길동이의 von Neumann-Morgenstern 효용함수가  $u(x) = \sqrt{x}$  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은 1(원)이다.  
나. 동생이 현금 50(원)을 주며 이 복권과 바꾸자고 하면 바꾸는 것이 길동이에게 유리하다.

- ① 가
- ② 나
- ③ 가, 나
- ④ 가, 나 모두 옳지 않다.

20. 세 종류의 재화  $x_1, x_2, x_3$ 로 이루어진 경제를 고려하자. 각 재화의 가격은 각각  $p_1, p_2, p_3$ 이다. 각 재화 시장의 초과수요를 각각  $z_1, z_2, z_3$ 로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은 정보가 주어졌다고 하자. 이 경우  $p_3$ 는 얼마인가? (단,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begin{aligned} p_1 &= 1, & p_2 &= 2, \\ z_1 &= 30, & z_2 &= -10, & z_3 &= -5 \end{aligned}$$

- ①  $p_3 = 1$
- ②  $p_3 = 2$
- ③  $p_3 = 3$
- ④  $p_3 = 4$

21. 어떤 경제가 아래 표와 같이 피자와 햄버거를 생산하여 소비한다. 2015년이 기준연도일 경우 2022년의 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얼마인가?

	2015년		2022년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피자	200	\$5	400	\$8
햄버거	250	\$4	500	\$8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 ①      150                                      150
- ②      180                                      150
- ③      180                                      180
- ④      200                                      360

22. 어떤 경제의 실업률이 10%, 경제활동참가율이 60%, 비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 명이다. 이 나라의 실업자는 몇 명인가?

- ① 100만 명
- ② 150만 명
- ③ 200만 명
- ④ 250만 명

23. 어떤 나라의 본원통화가 2,000달러이다. 이 나라 국민은 자신의 통화 중 1/5은 현금으로, 나머지 4/5는 예금으로 보유하며, 은행은 이 예금의 1/4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나라의 통화량은 얼마인가?

- ① 2,000달러
- ② 4,000달러
- ③ 5,000달러
- ④ 8,000달러

24. 어떤 경제에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이와 동시에 명목이자율이 하락하고 생산량이 감소했다. 이 디플레이션이 기대된 것일 경우, IS-LM 모형에서 위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실질이자율이 상승하여 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 ② 실질통화량이 감소하여 투자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 ③ 고정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 ④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소득이 재분배되어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25.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율도국이 공공투자지출을 증가시켰고, 그 결과 경기적 실업이 감소했다.
- ② 유진국이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했고, 그 결과 마찰적 실업이 증가했다.
- ③ 유토국이 완전고용을 달성했고, 그 결과 자연실업률이 0%가 되었다.
- ④ 유로국이 법정최저임금을 인상했고, 그 결과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했다.

26. Solow 성장모형에서 안정상태(steady-state)에 있었던 경제에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인구는 감소했으나 생산함수, 총자본량, 저축률, 인구증가율, 감가상각률은 영향받지 않았다. 이 경제의 1인당 생산의 시간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인당 생산은 전염병 확산 직후 (가), 안정상태로의 조정과정에서 (나).

가	나
① 증가하고	감소한다
② 증가하고	증가한다
③ 감소하고	증가한다
④ 감소하고	감소한다

27. Solow 성장모형의 생산함수는  $y = k^{1/3}$ , 저축률은 40%, 인구증가율은 6%, 감가상각률은 4%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 는 1인당 생산,  $k$ 는 1인당 자본이다.)

- ①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 ② 노동소득 분배율은 자본소득 분배율의 두 배이다.
- ③ 안정상태(steady-state)의 1인당 생산은 1인당 자본의 1/4이다.
- ④ 안정상태(steady-state)에서 1인당 자본은 매기 6%씩 증가한다.

28. 소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케인즈의 소비함수에 의하면 한계소비성향은 평균소비성향보다 크다.
- ② 쿠즈네츠(Kuznets)가 발견한 소비의 수수께끼에 의하면 장기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진다.
- ③ 항상소득 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의하면 항상소득이 커질수록 항상소득의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진다.
- ④ 생애소득 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의하면 총인구 중 중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상승하면 국민 전체의 저축률은 높아진다.

29.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국민소득이 국민총지출(absorption)보다 작으면 순수출은 음(-)이 된다.  
 나. 민간저축이 민간투자보다 작고 재정수지가 적자이면 순수출은 음(-)이 된다.  
 다. 소비지출이 100, 투자지출이 40, 정부지출이 30이며 국민소득이 150인 경우 순수출은 -20이 된다.

- ① 가, 나
- ② 나, 다
- ③ 가, 다
- ④ 가, 나, 다

30. AD-AS 모형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동시에 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단, AD 곡선은 우하향, AS 곡선은 우상향한다.)

- 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한다.
- ② 중앙은행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춘다.
- ③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정부 채권을 매입한다.
- ④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시킨다.

31.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Mundell-Fleming모형에서 정부지출과 세금을 동일한 크기로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는?

- ① 고정환율제도에서 그 경제의 통화공급이 증가한다.
- ② 고정환율제도에서 그 경제의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 ③ 변동환율제도에서 그 경제의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 ④ 변동환율제도에서 그 경제의 통화가치가 절하한다.

32. 어떤 해에 한국의 명목이자율은 3%, 미국의 명목이자율은 5%,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3%라고 하자. 이자율 평형조건과 상대 구매력평가가 성립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기대치 = 실제치라고 가정한다.)

- ① 한국의 물가는 1% 상승한다.
- ② 원화는 달러에 대해 2% 절하한다.
- ③ 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같다.
- ④ 원/달러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는다.

33. 어떤 경제의 거시경제모형이 아래 식과 같다. 중앙은행은 이자율이 2%로 유지되도록 통화량을 조절한다. 완전고용 생산량이 7,400일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조절할 경우 재정수지는 어떻게 되는가?

$$Y = C + I + G$$

$$C = 1,000 + 0.8(Y - T)$$

$$I = 500 - 1,000r$$

$$G = T = 100$$

(단,  $Y$ 는 생산량,  $C$ 는 소비,  $I$ 는 투자,  $G$ 는 정부지출,  $T$ 는 세금,  $r$ 은 이자율이다.)

- ① 100만큼 흑자가 된다.
- ② 100만큼 적자가 된다.
- ③ 20만큼 흑자가 된다.
- ④ 20만큼 적자가 된다.

34. 어떤 경제의 단기 필립스 곡선이 아래 식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 경제의 희생률은 얼마인가? (단, 실업률이 1% 증가하면 실질 GDP는 2%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단기 필립스 곡선:  $\pi = \pi^e - 0.25(u - u_N)$   
(단,  $\pi$ 는 인플레이션율,  $\pi^e$ 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u$ 는 실업률,  $u_N$ 은 자연실업률을 나타낸다.)

- ① 1
- ② 2
- ③ 4
- ④ 8

35. 통화정책이 자유재량보다는 준칙(rule)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가. 자유재량 정책이 시간불일치(time inconsistency)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자유재량 정책이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통화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걸리는 외부시차가 길기 때문이다.

- ① 가, 나
- ② 나, 다
- ③ 가, 다
- ④ 가, 나, 다

36. 전통적 IS-LM 모형은 투자가 이자율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만약 투자가 이자율뿐만 아니라 생산에도 의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I = \bar{I} - br + dY$   
(단,  $I$ 는 투자,  $r$ 은 이자율,  $Y$ 는 생산이며,  $b, d > 0$ 이다.)

- ① 정부지출의 승수가 더 커진다.
- ② IS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된다.
- ③ 재정정책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
- ④ 정부지출 증가 시 민간투자가 감소할지 증가할지 불분명하다.

37.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 ② 소비가 현재소득이 아니라 항상소득이나 평생소득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 ③ 국공채발행을 통한 세금인하는 같은 크기로 국민저축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 ④ 주어진 정부지출의 재원을 국공채발행으로 조달하든 세금인상을 통하여 조달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38. 공급중시 경제학파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 ②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 ③ 세금을 인하하는 경우 총수요와 총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 ④ 세금 인하를 통하여 실업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39. 환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동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에 비해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확대해 준다.
- ② 변동환율제도에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 ③ 고정환율제도는 방만한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역할을 한다.
- ④ 고정환율제도에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외환을 매입한다.

40.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 경제 모형이 아래 식과 같다. 이 경제에서 정부지출이 1,200으로 증가할 때 균형상태의 순수출 변화량은 얼마인가?

$C = 1,000 + 0.75(Y - T)$   
 $I = 2,500 - 10,000r$   
 $G = T = 1,000$   
 $NX = 1,000 - 0.1Y - \frac{500}{\epsilon}$   
 $\frac{M^d}{P} = \frac{Y}{10r}, M^s = 10,000, P = 1$   
 $r = r^f = 0.05$   
(단,  $Y$ 는 국민소득,  $C$ 는 소비,  $I$ 는 투자,  $G$ 는 정부지출,  $T$ 는 세금,  $NX$ 는 순수출,  $\epsilon$ 은 실질환율,  $M^d$ 는 통화수요,  $M^s$ 는 통화공급,  $P$ 는 국내물가,  $r$ 은 국내이자율,  $r^f$ 는 해외이자율이다.)

- ① -80
- ② -160
- ③ -200
- ④ -240

1.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로부터 나온 확률표본 16개의 표본평균이 10일 때 모평균  $\mu$ 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 ①  $10 \pm 1.65 \times 4$                       ②  $10 \pm 1.96 \times 4$   
③  $10 \pm 1.65$                           ④  $10 \pm 1.96$

2. 확률변수  $Y$ 의 표준편차가 2일 때 확률변수  $Z=3Y$ 의 분산은?

- ① 36                      ② 18                      ③ 6                      ④ 12

3. 성공확률이  $p$ 인 베르누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반복 시행하여  $k$ 번 성공할 때까지의 총 시행횟수를 확률변수  $X$ 라 하자. 이때 확률변수  $X$ 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가?

- ① 이항분포                      ② 초기하분포  
③ 기하분포                      ④ 음이항분포

4. 다음 중 확률표본추출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가용표본추출(Available Sampling)  
② 단순무작위추출(Simple Random Sampling)  
③ 집락(군집)추출(Cluster Sampling)  
④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

5. 프로야구 경기에서 연장전을 할 확률이 0.2라고 할 때 10번의 경기에서 연장전을 치르는 경기의 횟수  $X$ 는 이항분포  $Bin(10, 0.2)$ 를 따른다. 이때 적어도 한 경기 이상이 연장전으로 이어질 확률은?

- ①  $P(X=1) = \binom{10}{1}(0.2)^1(0.8)^9$   
②  $1 - P(X=1) = 1 - \binom{10}{1}(0.2)^1(0.8)^9$   
③  $1 - P(X=0) = 1 - \binom{10}{0}(0.2)^0(0.8)^{10}$   
④  $P(X=0) = \binom{10}{0}(0.2)^0(0.8)^{10}$

6. 상자그림(Box Plot)으로부터 알 수 없는 통계량은?

- ① 최솟값(Minimum), 최댓값(Maximum)  
②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③ 중앙값(Median)  
④ 평균(Mean)

7. 서로 독립인 두 확률변수  $X, Y$ 가 각각  $N(0,1)$ ,  $N(1,3)$ 을 따를 때, 확률  $P(X+Y \geq 4.92)$ 는 얼마인가?

(단,  $P(|Z| \geq 1.96) = 0.05$ ,  $P(|Z| \geq 1.645) = 0.1$ )

- ① 0.025                      ② 0.05  
③ 0.075                      ④ 0.1

8. 확률변수  $X$ 가 평균  $\mu=60$ 과 분산  $\sigma^2=16$ 을 가질 때 체비셰프 부등식에 의한 확률  $P(54 < X < 66)$ 의 하한은?

- ①  $\frac{1}{4}$                                       ②  $\frac{4}{9}$   
③  $\frac{5}{9}$                                       ④  $\frac{2}{5}$

9. 단순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X$ 와 종속변수  $Y$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 10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약 값을 얻었다. 최소제곱법에 의해 추정된 회귀선은?

$$\sum_{i=1}^{10} X_i = 40, \quad \sum_{i=1}^{10} X_i^2 = 175, \quad \sum_{i=1}^{10} Y_i = 50, \quad \sum_{i=1}^{10} Y_i^2 = 215, \quad \sum_{i=1}^{10} X_i Y_i = 179$$

- ①  $\hat{Y} = 10.6 - 1.4X$   
②  $\hat{Y} = 10.6 - 2.33X$   
③  $\hat{Y} = 8.6 - 1.4X$   
④  $\hat{Y} = 8.6 - 2.33X$

10. 다음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어느 공장의 현황이다.

	생산량	불량률
기계 1	30%	1%
기계 2	40%	3%
기계 3	30%	2%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가운데 임의로 뽑힌 1개의 제품이 불량품일 때, 기계 1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은?

- ①  $\frac{1}{7}$                                       ②  $\frac{2}{7}$   
③  $\frac{3}{7}$                                       ④  $\frac{4}{7}$

11.  $X_1, X_2, \dots, X_{12}$ 가 균일분포  $U(0,2)$ 의 확률표본이라 할 때 확률변수  $Y = \sum_{i=1}^{12} X_i$ 의 분포는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N(\mu, \sigma^2)$ 을 따른다. 이때  $Y$ 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얼마인가?

- |   |    |    |   |    |    |
|---|----|----|---|----|----|
|   | 평균 | 분산 |   | 평균 | 분산 |
| ① | 12 | 4  | ② | 12 | 6  |
| ③ | 6  | 4  | ④ | 6  | 6  |

12.  $X_1, X_2, \dots, X_{10}$ 은 정규분포  $N(\mu_1, \sigma^2)$ 의 확률표본이고  $Y_1, Y_2, \dots, Y_{15}$ 은 정규분포  $N(\mu_2, \sigma^2)$ 의 확률표본이다.  $X$ 와  $Y$ 는 서로 독립이며  $\sigma^2$ 은 모르는 상수이다.  $S_1^2$ 과  $S_2^2$ 이 각각  $X$ 와  $Y$ 의 표본분산일 때 공통분산  $\sigma^2$ 의 추정량인 통합표본분산(Pooled Sample Variance)  $S_p^2$ 를 잘 나타낸 것은?

- ①  $\frac{1}{23} [9S_1^2 + 14S_2^2]$                       ②  $\frac{1}{2} [S_1^2 + S_2^2]$   
③  $\frac{1}{23} [14S_1^2 + 9S_2^2]$                       ④  $\frac{1}{25} [15S_1^2 + 10S_2^2]$



23.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각 회사의 제품품질이 균일한지 알아보기 위해 네 회사로부터 부품 3개씩을 임의로 추출하여 부품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분산분석표를 얻었다.  $\alpha$ 의 값은?

요인	제곱합	자유도	F 비
처리	$\alpha$		4
잔차			
계	70		

- ① 25

②  $\frac{23}{1120}$
- ③  $\frac{3}{140}$

④ 42

24.  $X_1, X_2, \dots, X_9$ 는 감마분포  $Gam(4,3)$ 의 확률표본이고,  $\bar{X}$ 는 표본평균이다. 중심극한정리를 이용하여 구한  $P(8.71 \leq \bar{X} \leq 15.92)$ 의 근사확률은?

(단,  $P(|Z| \geq 0.65) = 0.5156$ ,  $P(|Z| \geq 0.55) = 0.5824$ ,  
 $P(|Z| \geq 1.96) = 0.05$ ,  $P(|Z| \geq 1.645) = 0.1$ )

- ① 0.451

② 0.549
- ③ 0.85

④ 0.925

25.  $X_1, X_2, \dots, X_n$ 이 정규분포  $N(\mu, \sigma^2)$ 의 확률표본일 때, 확률변수  $Y = (n-1)S^2/\sigma^2$ 은 자유도  $(n-1)$ 인 카이제곱  $\chi^2(n-1)$  분포를 따른다. 다음 기댓값은 알려졌다고 하자.

$$E\left[\frac{1}{S}\right] = \sqrt{\frac{n-1}{2}} \cdot \frac{\Gamma\left(\frac{n}{2}-1\right)}{\Gamma\left(\frac{n-1}{2}\right)} \cdot \frac{1}{\sigma}$$

$n=5$ 일 때  $\frac{C}{S}$ 가  $\frac{1}{\sigma}$ 의 불편추정량이면  $C$ 의 값은?

(단,  $S^2$ 은 표본분산,  $C$ 는 상수,  $\Gamma(1/2) = \sqrt{\pi}$ )

- ①  $\sqrt{\pi}$

②  $\sqrt{\frac{\pi}{2}}$
- ③  $\frac{1}{\sqrt{\pi}}$

④  $\sqrt{\frac{2}{\pi}}$

26. 어느 도시 성인들의 키(단위: cm)와 몸무게(단위: kg)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 도시의 성인 100명을 임의로 뽑아 키를 독립변수, 몸무게를 종속변수로 갖는 단순 회귀모형  $Y_i = \beta_0 + \beta_1 X_i + \epsilon_i$ ,  $\epsilon_i \sim N(0, \sigma^2)$ 를 적합한 결과, 회귀식  $\hat{Y} = 0.6X - 32$ 과 결정계수  $R^2 = 0.75$ 을 얻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오차인  $\epsilon_i$ 와 종속변수  $Y_i$ 는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

② 키  $X$ 가  $\bar{X}$ 일 때 몸무게  $Y$ 는  $\bar{Y}$ 이다.

③ 키가 10cm 증가하면 평균 몸무게는 6kg 증가한다.

④ 적합한 회귀식에 의해 키가 몸무게를 설명하는 정도는 75%이므로 키와 몸무게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75이다.

27.  $X_1, X_2, X_3, X_4$ 는 균일분포  $U(0,1)$ 의 확률표본이고,  $X_{(1)} \leq X_{(2)} \leq X_{(3)} \leq X_{(4)}$ 는  $X_1, X_2, X_3, X_4$ 의 순서통계량이라 하자.  $E[X_{(2)}] = a$ ,  $P(X_{(4)} < 1/2) = b$ 라 하면  $a+b$ 는?

- ①  $\frac{9}{16}$

②  $\frac{11}{35}$
- ③  $\frac{25}{62}$

④  $\frac{37}{80}$

28. 상관계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공분산과 상관계수의 부호는 서로 같다.

②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③ 두 변수 간 관계의 성질과 강도를 알려준다.

④ 적합한 회귀선 기울기가 양(+)이면 상관계수는 음(-)의 값을 갖는다.

29. 공평한 육면체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수를  $X$ 라 하고 조건부 분포  $Y|X$ 는 성공확률이 0.2인 이항분포  $Bin(X,0.2)$ 를 따른다고 하자. 이때 확률변수  $Y$ 의 평균  $E(Y)$ 는?

- ① 0.3

② 0.5
- ③ 0.7

④ 0.9

30. 단순선형회귀모형  $Y_i = \beta_0 + \beta_1 X_i + \epsilon_i$ ,  $i = 1, 2, \dots, n$  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오차항  $\epsilon_i$ 는 관측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오차항의 추정량인 잔차를 이용하여 등분산성, 독립성, 정규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다.
  - ② 오차항  $\epsilon_i$ 는 서로 상관을 가지고, 평균이 0, 분산이  $\sigma^2$  인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 ③  $\beta_0$ 는 회귀직선의 절편이다.
  - ④  $\beta_1$ 은 회귀직선의 기울기이다.

31. 분산분석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각 집단의 관측된 데이터 수는 반드시 같아야 한다.
  - ② 3개 이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이다.
  - ③ 각 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이고, 개별 관측값은 독립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 ④ 총변동을 집단 간의 변동과 집단 내의 변동으로 분해하여 집단 내의 변동보다 집단 간의 변동이 더 큰지를 분석한다.

32. 눈덩이표본추출방법(Snowball Sampling)이 필요한 경우로 가장 적합한 조사대상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도서지역 주민, 교도소 수감자
  - ② 마약중독자, 불법체류자
  - ③ 불법체류자, 국민연금 수령자
  - ④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문맹자

33. 다음과 같은 확률함수를 갖는 분포에서 얻은 두 확률 표본을  $X_1, X_2$ 라 하자. 이때 확률  $P(X_1 + X_2 \leq 1)$ 는?

$$f(x) = \begin{cases} x, & 0 \leq x \leq 1, \\ 2-x, & 1 < x \leq 2. \end{cases}$$

- ①  $\frac{1}{8}$
- ②  $\frac{1}{11}$
- ③  $\frac{1}{17}$
- ④  $\frac{1}{24}$

34. 다음 중 변동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변동계수는 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다.
  - ② 관측값의 산포 정도를 수치화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이용한다.
  - ③ 평균의 차이가 큰 두 집단의 산포 정도를 비교할 때 이용한다.
  - ④ 관측값의 단위가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산포 정도를 비교할 때 이용한다.

35.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과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회귀분석이란 독립변수의 특정한 값에 따른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기법이다.
  - ② 상관분석이란 두 변수 사이의 밀접성(선형관계)의 강도(Strength)와 방향(Direction)을 나타내는 수치를 구하는 기법이다.
  - ③ 상관분석만으로도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는 물론, 관계의 원인과 결과인 인과관계까지를 손쉽게 규명할 수 있다.
  - ④ 회귀분석이나 상관분석을 할 때,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산포도(Scatter Plot)를 그려서 활용한다.

36. 김 대리가 받는 이메일의 20%에는 ‘행운’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행운’이란 단어가 포함된 이메일의 60%는 광고이고, ‘행운’이란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이메일의 30%도 광고이다. 김 대리가 받은 한 이메일이 광고일 때, 이 이메일에 ‘행운’이란 단어가 포함될 확률은?
- ①  $\frac{1}{5}$
  - ②  $\frac{3}{5}$
  - ③  $\frac{24}{100}$
  - ④  $\frac{1}{3}$

37. 어느 회사에서 현재의 직위가 회사가 마련한 정년연장안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의 일부가 표에 주어졌다. 현재의 직위와 정년연장안에 대한 의견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할 때,  $a$ 에 들어갈 기대도수(Expected Frequency)는 얼마인가?

	정년연장 찬성	정년연장 반대	합계
대리 이하	$a$		700
과장 이상			300
합 계	350	650	1,000

- ① 455

② 245

③ 105

④ 195
38.  $X_1, X_2, \dots, X_n$ 이 정규분포  $N(\mu, \sigma^2)$ 의 확률표본일 때 모평균  $\mu$ 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하고자 한다. 모집단의 표준편차  $\sigma$ 를 알고 있는 경우  $\sqrt{n}(\bar{X} - \mu)/\sigma$ 는 정규분포를 따르며, 모집단의 표준편차  $\sigma$ 를 모르는 경우  $\sqrt{n}(\bar{X} - \mu)/S$ 는 자유도  $(n - 1)$ 인  $t(n - 1)$ 분포를 따르고 표본크기  $n = 5$ 인 경우  $E(S) = 0.94\sigma$ 가 된다.  $\sigma$ 를 모르는 경우와 비교하여  $\sigma$ 를 아는 경우 정보가 많아 신뢰구간의 크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신뢰구간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감소하는가?(단,  $z_{0.025} = 1.96$ ,  $t_{0.025}(4) = 2.78$ )

- ① 약 13%

② 약 20%

③ 약 25%

④ 약 33%
39. 모평균  $\mu$ 에 대한 신뢰구간의 크기를 1/4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래의 표본 크기( $n$ )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 ① 4배 증가

② 4배 감소

③  $4^2$ 배 증가

④  $4^2$ 배 감소

40. 다음 A, B 두 회사는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조사 목적에 적합한 귀무가설( $H_0$ )과 대립가설( $H_1$ )은?

	현황과 목표
A 회사	현재 월평균 냉장고 판매량은 500대인데, 새로운 판매보너스 지급정책이 월평균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조사하고자 함.
B 회사	생산제품의 용기에 담긴 내용물의 중량이 750g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내용물을 담은 기계를 재조정하려고 조사하고자 함.

- |        | $H_0$          | $H_1$          |
|--------|----------------|----------------|
| ① A 회사 | $\mu > 500$    | $\mu \leq 500$ |
| B 회사   | $\mu \neq 750$ | $\mu = 750$    |
| ② A 회사 | $\mu = 500$    | $\mu > 500$    |
| B 회사   | $\mu = 750$    | $\mu \neq 750$ |
| ③ A 회사 | $\mu = 500$    | $\mu \neq 500$ |
| B 회사   | $\mu > 750$    | $\mu \leq 750$ |
| ④ A 회사 | $\mu \neq 500$ | $\mu = 500$    |
| B 회사   | $\mu \leq 750$ | $\mu > 750$    |

1. 조세의 중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엄격한 의미에서 중립성이란 조세부과가 민간부문의 경제 행위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 ② 조세부과의 결과로 초과부담이 발생하면 중립적이지 않은 조세로 간주한다.
- ③ 모든 조세가 반드시 경제행위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며, 피구세(Pigouvian Tax)와 같이 오히려 자원배분의 왜곡을 교정하는 경우도 있다.
- ④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2. 소득세수입함수가  $T = -400 + 0.4Y$ 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단,  $T$ 는 조세수입,  $Y$ 는 소득,  $Y > 1000$ 이다.)

- ① 소득세 한계세율은 40%로 일정하다.
- ② 조세수입은 누진적인 구조를 갖는다.
- ③ 소득이 1% 증가하면, 세수입은 1%보다 작게 증가한다.
- ④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크다.

3. 지출세가 소득세에 비해 우월하다는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애 전체로 볼 때, 소비흐름이 소득흐름보다 안정적이다.
- ②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행정비용이 적게 발생한다.
- ③ 자본이득을 실현 기준으로 과세할 때 우려되는 동결효과를 피할 수 있다.
- ④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 있어서 교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조세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부과시 수요량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초과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조세부과가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할 때는 보상수요곡선을 사용해야 한다.
- ③ 정액세(lump-sum tax)는 소득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과부담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콜렛(W. Corlett)과 헤이그(D. Hague)에 의하면, 여가의 보완재에 대한 고율 과세는 근로소득과 여가간 선택에서의 왜곡을 해소하는 대안이다.

5. 소득세의 한계세율은 40%이고,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이다. 어떤 개인의 소득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경우, 실효세율의 변화를 옳게 표현한 것은?

- ① 30%에서 32%로 변한다.
- ② 30%에서 40%로 변한다.
- ③ 40%에서 40%로 유지된다.
- ④ 40%에서 50%로 변한다.

6.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접세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입의 변화가 직접세보다 크다.
- ② 직접세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간접세보다 우위에 있다.
- ③ 여가를 고려하면, 직접세가 효율성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④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크고, 조세행정비용도 크다.

7.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의 세율은 국회가 결정하고, 지방세의 세율은 지방의회가 결정한다.
- ②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세이고,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다.
- ③ 종합소득세의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은 각각 6%와 45%이다.
- ④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4단계 초과누진 구조이다.

8. 최적물품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가 있다면, 모든 조세 수입을 이 재화에서 조달해도 무방하다.
- ② 필수재에는 높은 세율을, 사치재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을 증대시킨다.
- ③ 여가에 과세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운동기구, 유원지입장료, 골프장입장료 등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④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가 개인별로 서로 다르다면, 최적세율 결정에 있어서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여야 한다.

9. 헤이그(R. Haig)와 사이먼즈(H. Simons)의 포괄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를 화폐가치로 산정한 것을 포괄적소득으로 정의한다.
- ②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미실현자본이득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요소소득 및 이전소득, 귀속임대료, 비근로소득 등을 포함한다.
- ③ 포괄적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수평적 공평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 ④ 세원이 광범위하므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더라도 세수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10. 우리나라의 소득세체계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득공제란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소득공제는 소득획득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함으로써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된다.
- ③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형식의 공제를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서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부문에서 적용된다.
- ④ 저소득층에게는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11.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일세율 소득세(flat rate income tax) 하에서는 소득분배의 수직적 공평성이 개선된다.
- ② 누진세제 하에서 부부에 대해 개인단위로 과세하면, 결혼으로 인한 세부담의 변화가 없으므로 과세는 결혼에 대해 중립적이다.
- ③ 누진세제 하에서 부부에 대해 가족단위로 합산과세하면, 결혼으로 인해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 ④ 누진세제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명목소득의 증가는 명목조세부담액을 증가시키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12.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서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럽에서 시행했던 다단계거래세가 기업간 수직통합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 그 대안으로서 채택되었다.
- ② 소비형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부가가치는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과 자본재 구입비용을 뺀 것이다.
- ③ 순소득형부가가치세는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과 자본재의 감가상각비용을 뺀 것을 과세대상 부가가치로 간주한다.
- ④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소비형부가가치세로서 거래액공제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13.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세를 적용하면 그 직전 단계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된다.
- ② 면세대상에는 기초생활필수품, 의료·교육 등 공익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도서·신문 등 문화관련 재화 등이 있다.
- ③ 면세 시행에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 ④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수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4.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가. 통합을 통해, 법인이윤에 대해 1차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후 이윤이 배당되면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나. 통합을 통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법인부문과 부과되지 않는 비법인부문간 차별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

다. 통합방식 중 자본이득방식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사내유보이윤을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① 가
- ② 가, 나
- ③ 나, 다
- ④ 가, 나, 다

15.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서술 중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인플레이션기에 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의 실질가치가 실제의 감가상각액보다 낮아져서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

나. 기업이 투자비용을 타인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투자비용의 실질가치가 낮아진다.

다. 인플레이션기에 기업의 재고에 대해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재고 물품의 생산단가가 낮게 평가되어 법인세 부담은 커진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가, 나, 다

16.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 ① 비례소득세 부과는 대체효과를 통해 여가를 감소시킨다.
- ② 비례소득세 부과는 소득효과를 통해 여가를 감소시킨다.
- ③ 이자소득을 제외한 비근로소득에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 ④ 누진소득세를 부과하면, 근로소득이 많아질수록 세후 순임금률이 낮아지게 되어 대체효과가 커진다.

17. 피셔(I. Fisher)의 시점간 자원배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②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시점간 자원배분모형에서 예산선이 평행이동하고 현재소비는 감소한다.
- ③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④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는 현재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18. 물품세의 귀착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종량세로 부과되는 물품세의 귀착은 조세납부의 의무가 생산자와 소비자 중 어느 쪽에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②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동시에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면, 소비자와 생산자 중 어느 한쪽만 부담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의 조세부담 몫이 커진다.
- ④ 공급곡선이 가팔라질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 몫이 작아진다.

19. 지방세로서 적절한 세목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 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편익에 상응하게 과세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② 재원의 지역간 이동성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세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해당 지역에만 있는 고유한 세원에 과세하는 것이어야 한다.

20.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완전한 정보, 완전한 이동성, 규모에 대한 수익증가, 외부성의 비존재 등을 가정한다.
- ② 일정한 가정이 충족된다면, 각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세금 징수 및 지방공공재 공급 결정을 내리는 분권화된 체제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
- ③ 각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재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지역을 골라서 이주하게 됨에 따라 비슷한 기호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다.
- ④ 선진국의 많은 도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타적 구획규제는 티부가설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1.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연금은 정부의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국민연금은 조기은퇴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민간보험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③ 정부가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가계가 강제저축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④ 국민연금은 한 세대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간에도 재분배효과를 가져온다.

22.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교부금이다.
- ② 비대응보조금은 지역주민의 사용재 소비를 늘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③ 대응보조금은 자중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고 공공재 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대응교부금 지급의 경우보다 공공재 소비가 더 크게 늘어난다.
- ④ 한 지역의 공공사업이 다른 지역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다 줄 때, 피구적보조금을 통해 이로온 외부효과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다.

23. 후생경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경쟁균형은 시장실패 요인 없이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얻어진다.
- ②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일련의 가정 하에서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임을 보여 ‘보이지 않는 손’의 명제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였다.
- ③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소비자의 선호가 볼록성을 가질 때, 초기부존을 재배분하면 어떠한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도 분권화된 시장기구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음을 보였다.
- ④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공리주의적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

24.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시장거래가 위축되기도 한다.
- ②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은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높은 생산량을 선택한다.
- ③ 공공재의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④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개살구 시장이 형성되면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워진다.

25. X재의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이 각각  $Q^D=100$ 과  $Q^S=5P+20$ 이다. 여기서  $P$ 는 가격이며 단위는 원이다. 정부는 X재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1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품세 부과 전과 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같다.
- ② 물품세 부과 전과 후 시장의 균형거래량은 동일하다.
- ③ 물품세 부과로 얻게 되는 총 세수는 100원이다.
- ④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0이다.

26. 공공재 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배제성이 불완전하여 혼잡이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클럽재라고 한다.
- ② 그로브즈(T. Groves)와 클라크(E. Clarke)가 제시한 수요표출 메커니즘은 공공재의 효율적 생산과 예산의 균형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 ③ 린달(E. Lindahl)의 자발적 교환모형에서는 소비자들이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과 비용부담비율을 도출할 수 있다.
- ④ 소비자들이 공공재와 사용재를 함께 소비하는 사무엘슨모형에서 공공재의 최적 공급조건은 개인들의 한계대체율의 합이 한계변환율과 일치하는 것이다.

27. 다음 중 사회적 선호체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특성으로 애로우(K. Arrow)가 제시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대안 X를 대안 Y보다 선호하면 사회적으로도 대안 X가 대안 Y보다 선호되어야 한다.
  - ② 사회적 선호를 도출할 때 바탕이 되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는 단봉선호와 같이 현실적인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 ③ 대안 X가 대안 Y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대안 Y가 대안 Z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면, 대안 X는 대안 Z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어야 한다.
  - ④ 대안 X와 대안 Y에 관한 사회적인 선호는 이 두 대안 외의 다른 대안들과 무관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28. 공공도서관에 배정할 예산수준을 해당 분야 담당자 3인이 결정하려고 한다.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0(배정 없음), L(낮은 수준), M(중간 수준), H(높은 수준) 네 가지이며 이에 대한 담당자들의 선호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콩도세승자(Condorcet winner)를 최종선택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담당자	선호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나열)
1	L, 0, M, H
2	M, L, H, 0
3	H, M, L, 0

- ① 이들의 선호는 0-L-M-H 순서를 바탕으로 하는 단봉선호이다.
  - ② 최종적으로 M이 선택된다.
  - ③ 대안 0을 선택할 수 없게 되면 결과가 바뀐다.
  - ④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29. 관료들이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니스카넨 모형(Niskanen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료들은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 ② 관료들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공급량을 결정한다.
  - ③ 사회적 관점에서 최적인 공급량에서는 총편익곡선과 총비용 곡선이 교차한다.
  - ④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초과공급하게 된다.

30. 공공부문의 투자사업 A의 비용과 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내년의 비용과 편익만을 할인하며 이때 사용되는 할인율은 10%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억 원)		올해	내년
사업 A	비용	11	33
	편익	44	0

- ①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3억 원이다.
- ② 비용의 현재가치는 41억 원이다.
- ③ 내부수익률법에 따르면 이 사업은 타당하다.
- ④ 편익-비용비율법에 따르면 이 사업은 타당하다.

31.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U(X, Y) = \min \{X, Y\}$  이고 소득은 50원으로 주어진다. 현재 두 재화의 시장가격은 모두 1원인데, 정부는 X재에 대해 50%의 물품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물품세로 인한 대체효과는 X재의 소비를 5만큼 감소시킨다.
  - ② 물품세로 인한 소득효과는 두 재화의 소비를 모두 감소시킨다.
  - ③ 물품세 도입으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 ④ 정부는 총 12.5원의 조세수입을 얻게 된다.

32. 수도사업과 같이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가격설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우하향의 수요곡선을 가정한다.)
- ①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며 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한다.
  - ② 평균비용가격설정 방식을 이용하면 한계비용가격설정 방식에 비해 공공서비스의 생산량이 적어진다.
  - ③ 평균비용가격설정 방식 하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 ④ 이부가격을 이용하면 자중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33. 공공서비스 X재와 Y재의 가격을 램지가격설정 방식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두 재화간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이고 두 재화 생산의 한계비용이 항상 C로 동일하게 주어질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램지가격설정 방식은 총수입으로 총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제약 하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
  - ② X재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일수록 X재의 가격은 한계비용에 가까워진다.
  - ③ 각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 항상 단위탄력적이라면 X재의 가격과 Y재의 가격은 동일하게 결정된다.
  - ④ 고소득자에게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분배의 공평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34. A시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하여 각 사회 구성원에게  $\max \{m - tY, 0\}$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여기서  $m$ 은 기초수당,  $t$ 는 한계세율,  $Y$ 는 개인이 스스로 번 소득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m$ 이 50만 원이고  $t$ 가 0.5일 때, 스스로 번 소득이 80만 원인 개인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스스로 번 소득보다 크다.
  - ② 보조금이 0이 되기 시작하는 소득수준은  $\frac{m}{t}$  원이다.
  - ③ 부의 소득세제 운영에 주어진 예산이 일정한 경우, 기초수당을 높이려면 한계세율을 낮춰야 한다.
  - ④ 한계세율이 1인 경우, 스스로 번 소득이 기초수당액보다 적은 사람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을 수 있다.

35.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과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 ② 근로빈곤층의 생계안정과 근로유인제공을 위해 도입하였다.
  - ③ 가처분소득은 소득수준이 0으로부터 증가할 때 처음에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소득이 상당 수준을 넘어서면 감소하기 시작한다.
  - ④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다.

36.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현물보조와 현금보조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예산이 사용될 때 수혜자는 현금보조보다 현물보조를 선호한다.
  - ② 현금보조시에는 개인의 선택에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 ③ 현물보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할 유인을 줄인다는 장점을 가진다.
  - ④ 현물보조는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37. 재정착각(fiscal illus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캐넌(J. Buchanan)은 조세를 여러 가지로 잘게 쪼개 부과하면, 납세자들이 조세의 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다운즈(A. Downs)는 납세자가 정부의 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불완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재정착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③ 오우츠(W. Oates)는 경제가 성장하는 사회에서 세수의 소득 탄력성이 높다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하는데, 이를 납세자들이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 ④ 오우츠(W. Oates)는 납세자들이 국채가 미래의 조세부담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38. 정부지출 증가의 원인에 대한 견해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학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정부지출 증가의 원인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느리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비용절감이 힘들고, 정부지출의 규모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나. 전쟁과 같은 사회적 혼란 시기에는 국민들의 조세부담 허용 수준이 높아져 갑작스런 정부지출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생긴다. 사회적 혼란기를 지난 후에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중은 높아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 ①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부캐넌(J. Buchanan)
- ② 보몰(W. Baumol), 피콕-와이즈먼(A. Peacock & J. Wiseman)
- ③ 부캐넌(J. Buchanan), 피콕-와이즈먼(A. Peacock & J. Wiseman)
- ④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보몰(W. Baumol)

39. 정부는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A기업에게 피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A기업이  $Q$ 단위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사적한계비용은  $80 + Q$ 이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지역사회가 입는 한계피해는  $\frac{1}{2}Q$ 이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시장가격이 200일 때,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유도하기 위한 피구세는? (단, A기업은 경쟁시장 내의 기업이다.)

- ① 10
- ② 20
- ③ 40
- ④ 80

40. 불평등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작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
  - ② 로렌즈곡선(Lorenz curve)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
  - ③ 5분위배율(quintile share ratio)이 작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
  - ④ 앳킨슨지수(Atkinson index)가 클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